

▶ 졸업 '정상화' 조선대 다시 시끌 왜

교과부 “옛 재단측 이사 2명 추가” 조선대 “운영권 장악 음모” 반발

지난 연말 정이사 체제로 탈바꿈한 조선대가 다시 들끓고 있다. 학교법인 이사 9명 가운데 아직 선임하지 않은 2명의 선임권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 판 대결도 불사할 태세다.

교과부가 고인이 된 박철웅 전 조선대 총장의 아들인 박성섭씨 측 추천 인사들로 2명을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대 측은 이렇게 될 경우 22년간의 학원민주화 운동이 모두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원 이사 2명이 뭐길래=현재 조선대 이사는 정원 9명 가운데 7명만이 선임돼 있다. 이들은 교과부 추천 2명, 종전이사 정예리시·박성섭씨 측 1명, 종립적인 종전이사 추천 2명 등이다.

교과부는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전체회의를 통

해 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조선대측에 통보했다. 사분위는 다음달 1일 계획돼 있으며, 교과부는 박성섭씨 측 추천 인사 2명을 이사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사회는 박성섭씨 측 3명·교과부측 2명·종립적인 종전이 사측 2명·조선대측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조선대측이 걱정하는 것은 박씨와 교과부측 추천 이사 5명이 연대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학교 운영의 주도권이 박씨측으로 넘어가 경영의 자율성은 물론 안정성을 침해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칫 22년 전 상황으로 회귀하면서 학교가 걸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화시켜놓고 인정하지 않는 교과부=교과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조선대 9명의 이사 정원 중 7

명의 이사 선임 사실을 조선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첫 이사회가 지난 15일 열려 강현욱 전 전분지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결국 조선대는 교과부로부터 7명의 이사선임을 통보받은 1월1일 또는 이사장을 선임한 1월 15일을 기해 정상화가 됐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교과부의 입장은 다르다. 교과부는 나머지 이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정상화가 마무리된다고 보고 다음달 1일 이사 선임을 마무리할 태세다.

조선대측은 정이사 선임에 이어 이사장 선출로 정상화가 마무리됐고, 새 이사장이 법률에 따라 정상적인 집무를 하고 있는데도, 교과부가 법률적 근거가 없이 역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교과부가 조선대 정상화보다는 박씨측과 손잡고 대학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

심의 눈초리다.

학교법인 조선대 산하 전 기관의 대표격인 ‘법조선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교과부와 사분위에 ‘추가 이사선임’ 증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987년 학내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조선대 1·8 학생 교수모임과 민주동우회, 총학생회도 성명을 내고 “부정비리 등으로 축출된 옛 재단 일가와 추종세력이 정이사로 복귀한 것 자체가 분규와 갈등의 시작이다”며 7명의 정이사 체제에 대한 전면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선대는 또 교과부 직원들이 이사 선임과정에서 후보 추천 마감을 어긴 종전이사 측에 4차례나 후보 추천을 하도록 편의를 보냈으며 이들의 처벌을 바라는 진정서를 서울 중앙지검과 감사원, 교과부 등에 제출했다. /채희중기자 chae@



아이티 돕기 바자회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행자)가 29일 광주시 서구 관천동 신세계백화점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아이티 돕기 바자회를 열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모금한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전달했다. 바자회는 31일까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경영난 가중

90곳 설문조사...35% “워크아웃 여파 자금경색”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추진으로 광주·전남 지역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몇 달 안에 문을 닫을 수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90곳(응답업체 3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발인 결과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업체의 34.6%가 자금경색을 꼽았다. 자금결제가 2~3개월 미뤄진 탓에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자금난 26.9%, 수주 악화로 종업원 급여 및 원부자재, 운영비 등 긴급 경영자금 지원 시급 15.4%, 기존 대출금역의 상환 압박 7.7%, 자금압박으로 말미

암은 설비투자 감소 7.7%, 전자어음·전자채권의 할인 불가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3.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관식 답변에서 이들 협력업체는 “채권단의 실사가 조속히 끝나 정상적인 주문과 결제가 되지 않으면 몇 달 안에 회사를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여기에서 워크아웃 이후 수주가 전혀 없는 상태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종업원 급여 지급도 못하고 부가세도 못 낼 처지에 놓였다는 응답도 많았으며, 일감이 없어 매출 부진으로 경영과 고용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대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기존에 배정된 정책자금의 액수로는 자금수요에 매우 부족해 일시

적 경영애로 기업에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보에 나서는 등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애로 사항 대부분은 자금 분야인데 다음 주 중에 설문 내용을 근거로 지자체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 회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삼성전자 세계 1위 전자업체 등극 매출액 지멘스·HP 제쳐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며 세계 최대의 전자업체로 등극했다.

삼성전자는 29일 작년 4분기에 국내외 사업장을 합한 글로벌 연결기준으로 39조2천400억원의 매출에 3조7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전체로는 매출 136조2천900억원, 영업이익은 10조9천2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작년 매출은 기발환율

(1,164.5원)로 환산하면 1천170억 달러로, 2009회계연도의 독일 지멘스(1천98억 달러)와 미국 휴렛팩커드(HP·1천146억 달러) 실적을 넘어선 것이다.

매출 기준으로 정하는 미국 표준지의 2008년 세계 500대 기업 순위에서 삼성전자는(40위)보다 상위에 있는 전자업체는 지멘스(30위)와 HP(32위) 뿐이다.

따라서 매출로는 삼성전자가 사실

상 세계 최대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삼성전자의 작년 매출은 2008년(121조2천900억원)과 비교할 때 15.1%, 영업이익은 91.2% 늘어난 것이다.

4분기 매출은 3분기 대비 9.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도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100조·10조’ 클럽에 들게 됐다. /연합뉴스

